

백화, 정 씨, 영달은 함께 떠돌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된다.	영달은 백화를 도와주고, 영달에게 호감을 느낀 백화는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한다.	영달은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진 돈으로 기차표와 먹거리를 사주고 백화를 보낸다.	영달과 정 씨는 정 씨의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려 한다.	정 씨는 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삼포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다.
---	--	--	---	--

등장인물의 특징

백화	술집에서 도망쳐 나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함. 동생이 많은 농사꾼 집의 딸임. 고향에 갈 여비조차 없는 딱한 처지임.
영달	공사판을 전전하며 떠도는 막노동꾼임. 말은 거치나 따뜻한 마음을 지님.
정 씨	떠돌아다니는 막노동꾼임. 고향인 삼포에 가서 정착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



<p>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고향을 잃음.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임.</p>
--

영달의 행동과 그 이유

백화의 제안	영달의 반응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했 드릴게.”	“저 여잘 보냅니다.”



영달의 반응 이유
<p>“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백화와 살림을 차리려면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함.</p>

작품의 주제

정 씨가 생각하는 ‘삼포’의 모습	→	변화된 ‘삼포’의 모습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시골 마을 나룻배로 왕래해야 하는 섬마을	→	관광호텔을 짓는 공사판 사람들로 북적임. 예전엔 섬이었으나 신작로가 생기고 육지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음.



‘삼포’가 상징하는 것
<p>정 씨와 같은 서민들의 고향, 안식처 산업화로 인해 포근함, 안락함을 잃어버린 고향→근대화로 인해 복원적 가치가 훼손된 고향과 당대의 시대 상황을 의미함.</p>



작가의 의도
<p>삼포의 변화와, 정착할 곳을 잃은 정 씨와 영달의 모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이들의 보습을 드러내려고 함.</p>

제목의 의미 파악

삼포로 가는 길



<p>→세 사람의 모습이 이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제시됨. 길을 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로형 구조를 땀.</p>

삼포는 이들이 찾아가는 안식처이나, 이곳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남.

‘길’의 의미

일반적인 경우 : 인생의 축소판이자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교감을 나누는 공간

[삼포 가는 길]의 경우 :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인물이 우연히 만나 동행하면서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됨.

계절적 배경의 역할

겨울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난방비가 드는 등 더욱 견디기 힘든 계절임 특히 영달, 정 씨와 같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 유지가 곤란함.
----	--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의 애환을 강조하여 표현함.

소설 속 삶의 모습과 오늘날 삶의 모습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의 모습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	사회가 개별화·개인화되면서 타인과 유대감을 잃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함.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소외 되어 가고 있음.

1970년대의 시대 상황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경제 개발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임.

산업화는 경제 개발, 소득 수준 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농어촌이 해체되면서 농어민의 공향 상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등 산업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컸음.

그 외에도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함.

결말의 효과 파악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정 씨와 영달의 삶에 대해 정확한 결말을 짓지 않음.
인물 중심의 내용 전개에서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짐으로써 여운을 형성함.
‘눈발’과 ‘어두운 들판’이라는 배경을 통해 정 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암시함.



산업화 과정에서 민중들이 겪을 괴로움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함.

[삼포 가는 길]과 [심청전]의 결말 비교

[삼포 가는 길]의 결말	[심청전]의 결말
정 씨와 영달이 여전히 떠도는 삶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함.	심청이 황후가 되고 아버지와 재회하면서 아버지가 눈을 뜸.
불확실한 결말	행복한 결말



고전 소설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복을 받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소설은 다양한 형태의 결말 방식을 보임.

[삼포 가는 길]의 특징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을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담아냄.

여운을 남기는 장면을 결말로 제시하여 등장인물이 정처 없이 떠도는 힘든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임을 강조함.